

인 사 말

오늘 종단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동행 이사님들과 지원단원, 그리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시대는 지구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인간 평등에 역행하는 현저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아프리카야말로 현시대의 이기적 경쟁과 소유욕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희생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하는 일은 작으나마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자, 감히 한국불교의 인류애적 불사로 여기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념과 종교, 빈부와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차별없이 내리는 부처님의 법비처럼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자비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야 만들게 되었다는 자책과 함께 그동안 가져왔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민족의 아픔인 한반도 전쟁의 참혹함에서 일어날 힘도 살아갈 힘도 없을 때,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벽안의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책 한권 살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해야 했을 때 그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교육의 힘으로 우리가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환경이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가능성으로 열린 청소년들이 배움속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가꿔갈 수 있도록 수학할 학교건립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교육불사가 필요한 시기에 학교건립을 위해 땅을 기증해 주신 동봉스님과 건립기금을 지원해 주신 선원 수좌회,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사찰과 종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프리카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 불교 대승의 자비와 지혜가 여법하게 파종되어 활짝 꽃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원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5월 28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